

碩士學位論文

『오만과 편견』에 그려진
이상적인 결혼

指導教授 梁永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吳恩京

2005년 8월

『오만과 편견』에 그려진 이상적인 결혼

指導教授 梁 永 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년 4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 은 경

吳恩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5년 6월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오만과 편견』에 그려진 이상적인 결혼

吳 恩 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제인 오스틴이 살던 시대는 가부장제적이고 속물적인 사회 분위기와 어울려 잘못된 결혼관과 결혼 풍습이 만연되어 있었다.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에서 가부장제와 남녀 불평등 제도의 모순 속에서 특히 여성이 불리한 입장에 대항하여 정신적인 각성과 인격적인 성장을 통하여 분별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스틴은 이 작품을 통하여 여성 비하적이고 세속적인 동기로 인해 타락한 인습적 결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결혼이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봉건 가부장제 하에서 가난한 여성이 처하게 된 사회 현실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성 우월적인 결혼관이 당연시되고 있다. 샬롯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사랑이 없는 결혼을 선택하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샬롯의 결혼은 당시의 가난한 여성이 처하게 되는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속물적인 사회 속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리디아는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충동적으로 위컴의 외양적 매력에만 빠져 결혼도 하지 않고 동반 도피하는 우행을 저지른다.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고 수치스런 행동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면을 보여준다. 제인은 외모가 아름답고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여성 비하적인 덕목을 충실히 따르는 순종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좋게만 보려는 착한 심성을 지니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현실에 대한 냉철하고 직관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

세 여성 인물과는 대조적으로 엘리자베스는 명랑함과 재치뿐만 아니라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하고 있다. 그녀는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하여 성숙된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현실을 비판하는 고도의 안목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엘리자베스는 불합리한 경제적 상황과 부족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자기 발전을 이룩하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은 18세기 말 남성 위주의 가부장 체제에서 여성들을 구속하는 사회

* 본 논문은 2005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임.

적 제도와 경제적 불평등에 당당히 항변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을 가리킨다. 그녀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아 발견과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복한 결혼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상적인 결혼을 이루기 위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다.

가부장제적이고 속물적인 당대 사회의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조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자기 실현적인 결혼을 성취하는 엘리자베스의 당당한 모습은, 주어진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에 이르는 길은 현명한 자기 성찰과 인간 이해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보여준다 하겠다.



목 차

I. 서 론	1
II. 전통사회의 자아상실적 결혼	4
1. 가부장제적 여성억압	4
2. 샬롯의 속물적 결혼	9
3. 리디아의 충동적 결혼	13
4. 제인의 순종적 결혼	17
III. 엘리자베스의 자기실현적 결혼	24
IV. 결 론	41
Bibliography	44
Abstract	47

I. 서론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은 18세기 고전주의 시대가 끝나고 19세기 낭만주의 시대가 시작되는 격변기에 활동을 한 작가이다. 당대 영국사회는 정치적으로 절대군주체제가 무너지고 근대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으로 경제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문학사적으로는 낭만주의라는 새로운 문예사조가 시작되고 있었고 메리 울스톤크레프트(Mary Wollstonecraft) 등 선각자적인 여권 신장론자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가부장적 전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틴은 당대의 큰 논쟁거리였던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변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작가로 18세기 초의 고전주의로 회귀하는 문학 세계를 펼쳤다. 질서와 조화, 보편타당한 합리성이 전 부분에 걸쳐서 목표가 되었던 18세기 고전주의의 특징이 오스틴 문학에 나타나고 있다.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1813)을 비롯한 그녀의 대부분의 작품은 19세기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보다는 질서와 조화,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지향했던 고전주의 색채가 더 강하다.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고전주의 문학을 지향했던 오스틴 문학세계에는 체제 순응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오만과 편견』에 나타나 있는 당대의 결혼 풍속도를 고전주의와 결부시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스틴의 문학은 거창한 이념이나 사상을 제기하기보다는 가정생활과 결혼 문제 등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내용을 소재로 삼고 있다. 드류(Elizabeth Drew)는 오스틴이 당시 사회 변화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소재로 범위를 한정했던 것이라 하였다.¹⁾

오스틴 소설의 배경은 첨단인 시대변화를 겪고 있는 대도시가 아니다. 등장인물도 결혼 적령기에 든 남자와 여자, 귀족과 목사, 군인 등으로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귀족과 중류계급 출신이다. 그들이 빚어내는 평범한 생활상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이루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러한 요소들이 작가로서의 명성을 부

1) Elizabeth Drew, *The Novel*.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p. 120.

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정신에 둔감하고 역사적인 변화를 외면하며 일상의 삶에만 자족했다는 비판들은 오스틴 문학의 명성에 흠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비난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감탄과 경이의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Elizabeth)의 의식변화와 성장과정은 거창한 이념도, 환상적인 것도 아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완벽한 여성이 아니었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오만과 허영심, 환상과 편견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도덕적으로 성장한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고 성숙된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활기 있고 발랄한 성격의 소유자로 등장하는데 당시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지성과 판단력에 따라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제도적, 관습적인 장애가 많았던 사회를 배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관계를 동등하게 발전 가능한 것으로 표현했다는 면에서 오스틴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뛰어난 식견을 엿볼 수 있다. 『오만과 편견』에서 여러 쌍의 남녀들이 결혼에 성공하지만 결혼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상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인격의 성숙과 자기성찰이 이루어내는 준비 과정이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당대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서 갖는 위치에 의해 평가되고 규정된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은 순종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요받게 되고, 그들의 삶은 사회가 규정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에 의해 크게 제약받는다. 남성은 직업이나 교육을 통해 신분상승을 할 기회를 갖게 되지만, 여성은 그러한 기회에서 제외되었다. 여성이 받는 교육은 결혼을 잘 하고 장래의 남편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은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미혼 여성은 가난을 각오해야 했고, 가난하게 살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했다. 그리고 당시 중류 계급의 딸들은 집안의 체면이나 전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결혼은 여성들의 유일한 사회활동의 방편으로, 오스틴 소설에서는 자아실현의 주요한 수단이며 상징으로 나타난다.

『오만과 편견』에서 엘리자베스는 가부장적인 사회인습에 맹종하지 않고 소신껏 개성을 표현하고 자기 내면적인 욕구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가 성취한 이상적인 결혼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시대적,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하여 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 후의 그녀의 삶은 그녀 자신의 창조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 다아시의 재산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의 결혼이 “이상적”일 수 있는 것은 그녀 주변의 다른 여성들의 이상적이지 못한 결혼과정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제시된 엘리자베스의 결혼에 대한 대조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부장제적 사회의 요구와 감각적인 충동에 따르는 결혼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샬롯, 리디아, 제인, 엘리자베스의 결혼관을 당시대의 가부장제적 상황 속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당대 다양한 결혼관 가운데에서 돋보이는 엘리자베스의 결혼관을 의미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통사회의 자아상실적 결혼

1. 가부장제적 여성 억압

『오만과 편견』에 나타난 여러 젊은이들의 양성관계와 결혼과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가부장제적 사회제도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취급됨으로 인해 소극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여성들은 산업혁명 이전처럼 여전히 남성들보다 소극적인 존재로 취급되었고 남성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권리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육체적인 힘이나 지적인 능력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남성들은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에 필요한 이성적 자질을 가져야 하지만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예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영국사회는 나라가 운영하는 공립교육기관이 없었다. 단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고, 오스틴 소설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젠트리(Gentry) 계층의 여성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거의 없었다. 대신 젠트리 계층의 여자들은 집에서 부모들이나 집에서 거주하는 가정교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램머스쿨(grammar school)이 있었지만 그 곳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가르쳤고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론 여성들은 이튼(Eton)같은 퍼블릭 학교나 대학(옥스포드, 캠브리지)의 입학이 금지되고 있었다.

여성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고, 정치적으로 선거권도 없었고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 당시 많은 작가들은 여성교육은 집안일을 하기 위한 실제적인 것 -- 바느질, 자수, 옷 만들기, 요리 --을 배우는 것이고 여성들은 시도 읽지 말고 정치에 대해서도 무지해야 하고 오직 요리 책이나 성서만 읽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당시 여성들의 교육은 음악, 그림, 춤에 집중되었는데 물론 이것도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꼭 해야 할 일종의 필수과목이었다. 여성들은 오로지 남성들을 위한 존재로 취급되어 선택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들은 우아한 여성이 되도록 교육받았고 학문

적인 교육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여성은 순결하고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 유아시절부터 여성들은 남성을 존경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성장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성우위를 근본으로 하는 제도에 수긍하도록 길들여졌다. 바깥 세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남편은 최선을 다해 동료와 싸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처받고 나약해지고 환멸을 느껴 가정으로 돌아오면 여성은 남성을 위로해야 하는 일에 주력해야 했다. 자유로운 정신을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 당시 여성들의 모습이었다.

상류층 남자들이 캠브리지(Cambridge)와 옥스퍼드(Oxford)에서 법률, 논리학, 문학, 수사학, 신학 등을 논하고 있을 때, 상류층 여자들은 음악, 그림, 현대영어를 배우고, 걸음걸이의 연출, 아름다운 음성과 말씨, 표정 등을 가꾸고, 사교춤 추기, 수놓기를 하는 정도였다. 또한 사교적인 이유로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회화 같은 능력이 여성의 자질을 규정짓는 잣대가 되기도 했지만, 이런 능력은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다. 당시 독신여성이나 하류층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노동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상류층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남성들의 눈에 아름답고 교양 있게 보이기 위한 것들뿐이었다. 즉 이 당시 여성들의 교육은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다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으며 남성을 유혹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당시 여성의 덕목에 대해 모어(Hannah More)는 “여성에게 윤리적 미덕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며, 가사 일에 열중하는 삶은 따라서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범위의 삶이다”²⁾라고 주장한다. 또한 기스본(Gisborne)도 여성의 삶은 가정에 집중되어야 하고, 여성의 주된 책임감은 “남편, 부모, 또 형제자매의 안락함에 공헌함”³⁾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여성의 활동범위를 가정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사 생활에서도 여성

2) Hannah More, *Strictures on the Modern System of Female Education*. 2 vols. (London: Cadell and Davies, 1799), p. 149.

3) Thomas Gisborne, *Enquiry into the Duties of the Female Sex*. (London: Cadell and Davies, 1797), p. 12.

들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에서 다아시가 나열하는 “교양을 갖춘 (accomplished) 사람의 자질”을 통해 당시 여성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시다면 교양 있는 여자에 대한 선생님의 개념에는 틀림없이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야 물론이예요.” ...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훨씬 능가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익혔다고 할수 없죠. 그 말에 적합하려면 여자는 음악, 성악, 그림, 무용, 그리고 현대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는 교양을 갖추었다는 말을 들을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그녀만의 분위기, 걸음걸이, 목소리의 억양, 사람대하는 태도와 표현력 등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교양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⁴⁾

이렇듯 당대의 여성교육은 생산적이거나 창의성에 입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기보다 훌륭한 남편을 맞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다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으며 깊이 있는 식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모습은 특정한 개인적 성향이라기보다는 당시 중류층 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스스로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을 쌓는다거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을 기르지 않는 한 모두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케이트 밀렛(Kate Millet)은 대표적인 저서인 『성의 정치학』 (*Sexual Politics*)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면서 “가부장제(patriarch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녀관계가 설명되고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게 되고 열등한 성으로 간주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가부장제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생물학적인 차이점을 과장하여 남성은 항상 지배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4) Jane Austen, *Pride and Prejudice*. Ed Donald J. Gra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66), p. 28. ※ 앞으로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이 책으로부터 따온 것임.

5) Kate Millet, *Sexual Politics*. (New York: Doubleday, 1970), p. 120.

역할을 맡도록 하고, 여성은 항상 종속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도록 규정해버린다. 가부장제도는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여성을 속박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이런 전통 속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남성들은 여성들의 봉사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야 할 수혜자로 생각한다. 그리고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성을 부도덕하거나 여성답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오만과 편견』에서는 당대의 여성교육의 형태를 통해, 당대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조명한다.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여성스러운 훈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귀족적인 오만함으로 가득 찬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피아노와 노래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고 엘리자베스가 잘 치지 못한다고 하자, “베네트 가문 정도면 자식들을 런던에 보내서 그림을 가르치고 가정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인은 자신의 음악적 자질을 자랑하며 자신의 딸도 피아노에 능통하고 다아시의 동생도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다. 이와 같이 남자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고 연습에 몰두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성이 받아야 할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부인은 피아노 연습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남자들이 하는 카드게임이나 토론에 열을 올리는 엘리자베스를 은근히 무시한다.

중류층 여성들은 상류층 여성들처럼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을 뿐더러 가정 밖에서의 노동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결혼 문제는 당시 중류층 처녀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자 두려움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평생 짐이 되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중류층의 미혼 여성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길은 가정교사 밖에 없었다. 가정교사의 지위는 매우 독특하고 애매하여 재산이 별로 없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혼기를 놓치면 일반적으로 택하는 직업이 가정교사라고 인식되었다. 즉 여성 가정교사에게는 주부의 지위처럼 중요한 역할이 맡겨지면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 가정에 종속되어야 했다. 그리고 안정된 고용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최저 임금에다가 가정 내에서 고립되었으며 하녀와 가족의 중간에 있는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결혼만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

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시대 상황에서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미혼인 여성은 가정교사로 일하거나 귀족 집안의 여주인의 말동무로 일해야 했다. 27세인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남동생과 같이 살아야 했을 것이고, 리디아가 위컴과 결혼이후 언니인 제인에게 “언니는 곧 23살이므로 노처녀가 될 것”(145)이라고 놀리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결혼 못한 노처녀라는 타이틀을 여성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이 스스로 결혼하기를 원하거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압력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당시 여성이 노처녀로 늙는 것은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 재산이 없는 경우는 사회에서 천대받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에게 결혼이 사회적 지위와 삶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다. 어느 여성이나 결혼을 해야 했지만, 특히 경제적 여건상 남편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더더욱 결혼이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여성들은 또한 어떠한 종류이든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결혼을 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을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는 종류의 결혼을 해야 했을 것이다.⁶⁾

또 결혼은 계급적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결혼이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주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이 결혼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남성이 생계의 수단으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생산과 소비의 경제활동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여성들은 부유한 남편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젠트리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부모에게 상속받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고, 상속을 받더라도 결혼을 하면 재산은 남편에게 귀속되었고 남자 형제가 없을 때만 상속의 권리가 주어졌다. 여성은 개성이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압력 아래 남성의 위안처가 돼 주며 현모양처가 돼야 한다는 것이 그 시대 통념이었다.

6) 광지혜, 「Jane Austen의 *Pride and Prejudice*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p. 13.

2. 샬롯의 속물적 결혼

샬롯은 27세의 노처녀이고 인물이나 집안의 지위가 뛰어나지 못한 존재다. 그래서 그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부유한 남자를 선택하여 결혼해야 한다. 샬롯이 현실적인 측면을 직시하고 경제적인 관점에 비중을 두고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당시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적 위상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미래의 삶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콜린스를 선택한다. 이것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미래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샬롯은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다. 샬롯의 어머니는 샬롯이 콜린스와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샬롯의 어린 동생들까지도 그녀의 결혼을 기뻐한다. 샬롯의 집안에서는 콜린스와 결혼하는 것을 만족하면서 샬롯의 결혼을 “적당한 자리”(a most eligible match, 83)를 찾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양친인 루카스 부부를 비롯한 샬롯의 가족들은 남편을 물색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샬롯의 결혼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급속히 이루어진다. 맥도나(MacDonagh)는 당시 여성들의 삶은 부모·남자 형제·여자형제로부터의 압박, 여성이 피할 수 없는 영향들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여성적인 삶의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⁷⁾

루카스 경 부부는 곧 콜린스 씨부터 결혼을 승낙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래서 기쁘게 동의해 주었다. 콜린스 씨의 지금 형편으로 본다면 그들의 재산을 거의 나누어줄 수 없는 딸에게는 적당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가 장래에 부유하게 되리라는 기대 또한 낙관적이었다. 루카스 부인은 전보다 그 문제에 대해 훨씬 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몇 해나 베네트 씨가 더 살 수 있을까 계산하기 시작했다. 루카스 경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7) Oliver MacDonagh, *Jane Austen: Real and Imagined Worlds*. (Connecticut : U Of Yale P, 1991), p. 174.

즉 콜린스씨가 룡본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들 부부가 성 제임스에 나타나는 것이 아주 수월해 지리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런 경우에 집안이 모두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손아래 딸들은 이렇게 되지 않을 때보다 1,2년 빨리 사교계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사내아이들은 샬롯이 노처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83)

샬롯은 가정의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면보다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콜린스를 선택한다. 그녀는 콜린스와의 결혼을 성공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콜린스라는 인물이 분별력이 없고, 샬롯 또한 그에 대한 애정이 없지만 그녀의 현실적인 판단에 의하면 콜린스는 경제적인 부자 이외에도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자신의 배우자로서 괜찮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샬롯 자신은 꽤 침착한 편이었다. 그녀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좀더 생각해 볼 여유가 있었다. 그 결과는 대체로 만족한 것이었다. 콜린스씨는 확실히 분별도 없었고 그다지 마음에 드는 편도 아니었다. 그와 같이 사는 것은 지루할 것이고, 그의 애정이 근거 없는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렇더라도 그는 자신의 남편이 될 것이 아닌가. 그녀는 남자나 결혼 생활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으면서도 결혼하는 것만이 늘 그녀의 목표였다. 그것은 교육받은 가난한 처녀에게는 유일한 비용의 준비이며, 행복을 가져다 줄 가망성이 아무리 희박하다 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임에 틀림없었다. 이 예방책을 이제야 손에 넣은 것이다. 결국 그녀는 스물 일곱 살로서 결코 예쁘지도 않으면서 미인이 갖는 행운을 실컷 맛보게 되었다.(83-84)

그만큼 샬롯은 결혼에 대해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샬롯은 콜린스를 선택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신분적 요소 등의 외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중시했다. 구너렛(Gooneratne)은 그녀에게 콜린스는 남편 심지어 남성이기보다는 도박에서 따개되는 경품과 같은 존재였다⁸⁾고 평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이 단순히 현실적인

8) Yasmine Gooneratne, *Jane Auste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 98.

문제라고 생각하여 애정이나 사랑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샬롯은 결혼을 세속적이고 냉소적으로 보고 있다.

샬롯에게 결혼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목표이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수단을 잘 이용하여 남성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여야 한다. 그녀에게 결혼은 애정과 사랑에 바탕을 둔 것이기 보다는 남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다시 말하면 샬롯에게 결혼은 단순히 “기회”(chance)를 잘 포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것일 뿐이다.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은 결혼을 산업 자본주의의 결과로서 극도로 변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른 사회적 제도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⁹⁾ 마찬가지로 샬롯에게 있어서 결혼은 많은 사회적 제도들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제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자 샬롯이 말했다. 아무튼 난 진심으로 제인의 성공을 빌어. 그리고 만일 제인이 내일 당장 그분하고 결혼하더라도 일년동안 그분의 성격을 연구한 것 못지 않게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믿어. 결혼에 있어 행복이라는 것은 ‘기회’를 잘 잡는 것에 있거든. 두 사람이 결혼 전에 쌍방의 기질을 서로 잘 알고 서로 비슷한 데가 있었다 해도 그런 것은 조금도 두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켜주진 못해. 나중에 가서는 차츰 어긋나서 곤란한 일이 생기거든. 엘리자베스도 일생을 함께 지내려는 사람의 결점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아는 게 좋아.(16)

샬롯은 콜린스가 자신의 친구인 엘리자베스에게 거절당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차지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샬롯은 엘리자베스가 콜린스를 거절하자 바로 그에게 접근한다. 그녀는 콜린스를 상대로 구애의 행동을 조심스러우면서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그리고 그 날도 루카스 양은 친절하게 콜린스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 아주 상냥한 말씨로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샬롯의 친절은 엘리자베

9) James Thompson, "Courtship, Marriage and Work." *Between Self and World" The Novel of Jane Austen*, Pennsylvania: (U of Pennsylvania State P, 1988), p. 145.

스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콜린스 씨의 눈을 자기에게 끌어들여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데 있었다. 루카스 양의 계획은 그런 것이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럴듯해서 그들이 저녁에 헤어질 때 콜린스 씨가 그렇게 빨리 하퍼드셔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면 성공은 틀림없다고 느낄 정도였다.(82)

샬롯의 콜린스에 대한 친밀한 행동은 마침내 성공하여 그 다음날 즉시 콜린스로부터 칭혼을 받는다. 샬롯은 콜린스를 선택하고 결혼하기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남성과 여성의 구애행위의 상식을 벗어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샬롯은 콜린스와의 애정보다는 안정적이고 싶다는 마음에서 결혼을 선택한다. 샬롯과 콜린스의 결합은 행복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치 거래를 하듯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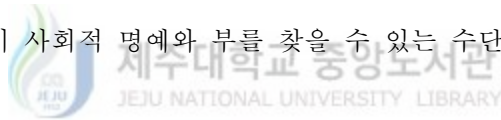
콜린스씨의 장광설로 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 안에 두 사람이 만족하도록 모든 일이 결정되었다. 집안에 들어가자 그는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날짜를 결정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러한 간청은 우선 거절해야 했지만 여자 쪽에서는 상대방의 행복한 기분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 콜린스씨는 원래 우둔해서 결혼 신청이 제발 계속 되었으면 하고 여자가 바랄 만큼의 매력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샬롯양은 다만 안정되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를 받아들인 것이지 얼마나 빨리 결혼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았다.(83)

이처럼 그들의 결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둘의 결합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조건적인 결합이었는가를 말해준다. 샬롯이 애정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결혼을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안락한 가정이란 제인이 추구하였던 내적인 사랑이 충분한 생활이 아니라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의미한다. 제이브(Stuart M. Jave)는 샬롯의 결혼에 대해 그녀는 안락한 가정을 유지하였고 그녀의 결혼 생활은 남편과의 애정

이 결여되었다고 평한다.¹⁰⁾ 샬롯은 콜린스의 친척관계, 지위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자베스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이 혼담은 정말 기쁜 일이고 진심으로 행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자 샬롯이 말했다.“놀랐을 거야. 정말 놀랐을 거야. 콜린스씨는 최근에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너도 내가 한 일에 만족 할 거야. 알다시피 난 로맨틱한 여자는 아니야. 그래 본 일이 없거든. 난 다만 안락한 가정을 구하고 있는 덕 뿐이야. 콜린스씨의 성격이나 친척, 지위를 생각해 볼 때, 그 분과의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결혼생활을 시작 할 때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85)

샬롯은 콜린스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샬롯은 선택이 제한된 상황과 자신의 현실적 위치를 고려하여 콜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혼을 여성이 사회적 명예와 부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간주한다.



3. 리디아의 충동적 결혼

리디아는 건강하고 예쁜 15세의 소녀이지만 “동물적 본능”(high animal spirits)(31)의 소유자로서, 가족의 명예와 인간의 도덕심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여성이다.

리디아는 자신의 관심사인 결혼에 대해서 자신 있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반듯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다. 스물 세 살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은 제인 언니가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언니들보다도 먼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거침없이 말한다.

10) Stuart M. Jave, *Some Words of Jane Auste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73), p. 137.

“아주 근사하게 좁혀 앉았군요. 모자는 참 잘 샀어요. 다른 상자에 있는 것은 단지 재미로 산 것이지만. 그건 그렇고 우리 집에 갈 때까지 얘기하고 웃으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가요. 우선 그 동안 언니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맘에 드는 남자들을 만나봤어요? 또 재미있게 놀았나요? 돌아올 때에는 누구든지 결혼해서 오길 무척 바랐는데 큰언니는 조금 있으면 노처녀가 되겠어요. 벌써 스물 세 살 아니에요. 내가 스물 세 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할까. 언니가 결혼하기를 필립스 이모가 얼마나 바라는지 언닌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모가 그러는데 둘째 언니는 콜린스씨하고 결혼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대요. 농담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아니, 난 언니들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어.” (144-145)

리디아는 결혼이 목표이므로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샬롯 역시 결혼 자체가 목표였다. 리디아와 샬롯의 공통점은 결혼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샬롯이 콜린스의 경제적, 신분적인 면을 염두해 두고 결혼을 하는 것이라면 리디아의 관심은 단지 남성 그 자체이다. 샬롯은 여성이 처한 현실과 결혼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이것에 반하여 처음부터 리디아의 행동은 결혼이라는 제도보다는 자신이 호감이 가는 남성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다.

엘리자베스는 종종 제인과 합심해서 리디아의 경솔한 언행을 저지해 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이든지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조심성도 없고, 책 얘기만 나오면 하품부터 하는 무식하고 게으르고, 게다가 허영으로 가득 찬 리디아는 언니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리디아의 관심은 오로지 남자들, 특히 주둔한 군대의 사관들과 사귀는 것에 있음을 보여 주며 이는 리디아가 어 느 한 사관과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리디아가 남성에게 갖는 열정은 자유롭고 박진감이 넘친다. 이러한 리디아의 열정적인 모습은 남성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에서 잘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그런 관심은 멋진 군복을 입은 사관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관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위컴이다. 처음부터 위컴에게 관심을 갖게 된 리디아는 위컴이 누구인

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은 어떤 청년에게 온통 마음이 쏠렸다. 그는 그들이 그때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젊다운 모습을 지닌 남자로서 거리 저편을 어떤 사관과 함께 걷고 있었다. 그 사관은 바로 테니 씨였다. 그가 런던에서 언제 돌아왔는지 리디아가 물으러 갔지만 그는 지나치면서 그저 눈인사만 했다. 모두가 그 처음 보는 이의 모습에 감동되어 대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 했다.(49)

리디아는 남성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지 돈에는 관심이 없다. 그녀는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이나 내면적 성숙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리디아가 남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살롯이 경제적, 신분적 조건을 고려해 남성을 선택한 것과는 다르다. 즉 리디아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엘리자베스처럼 경제성과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고 살롯처럼 전적으로 경제성과 관련하여 남성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어머니가 경제적 조건을 중시하며 빙리씨 얘기를 할 때에도 리디아는 무시해 버린다.

리디아와 키티는 사관들 이외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빙리씨의 막대한 재산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에게 칭량제가 되었지만, 그들(리디아와 키티)의 눈에는 기수의 군복에 비길만한 하등의 가치조차 없었다.(20)

리디아가 남성을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물질적, 외적 조건들이 아니다. 그녀는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가 아니라 남성 그 자체이다. 위컴 역시 리디아의 재산 때문에 리디아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위컴의 행동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제인, 엘리자베스, 베넷도 위컴이 리디아를 선택한 것이 재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제인은 “적어도 위컴씨는 재산에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 아버지가 그 애에게 아무 것도 물려줄 게 없다는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296)라고 말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도 “리디아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훌륭한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컴씨를 유혹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300)

라고 지적한다. 베넷씨 역시 “내(Mr. Bennet) 말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치고 내 생전에 연금이 겨우 100파운드며 죽은 뒤엔 5000파운드라는 하찮은 유혹에 끌려서 리디아와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다”(327)라고 한다. 그들의 말을 통해 리디아와 위컴의 결혼이 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메라톤 사회에서 “부도덕한 청년”(the wickest young man, 210)으로 소문난 위컴과 도망하고도 전혀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데, 그녀의 이런 모습은 위컴과 결혼하고 롱본에 들렀을 때 드러난다.

리디아는 아직도 리디아였다. 길들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야생적이고, 수다스럽고 겁이 없었다. 그는 이 언니에게서 저 언니에게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을 축하해 달라고 졸라댔다. 드디어 모두가 자리에 앉자, 리디아는 방안을 열심히 둘러보고 약간 변한 것을 알고는 웃으면서 여기 와본 지도 정말 오래되었다고 말했다. (205)

리디아는 남편인 위컴이 빚에 몰려 자신과 결혼한 사악한 인간인지도 모르고 그를 “매력적인 남자”(217)라고 사랑한다. 더구나 위컴과의 결혼을 식구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결혼에 대해 “언니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해.”(217)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그녀 가정이나 사회에 어떤 수치를 가져오는지 생각조차 못한다. 그들은 다아시의 구제를 받아 결혼을 함으로써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위컴은 리디아보다 더 당황하는 빛이 조금도 없고, 태도가 뻔뻔스럽다. 라이트(Andrew Wright)는 그를 음흉하고 불성실하며 타산적인 사람으로 평한다.¹¹⁾ 리디아는 전쟁에서 돌아온 개선장군을 방불케 한다. 그것도 모자라 리디아는 자기의 결혼을 무척 자랑스럽게 떠벌리면서, 군인들이 주재하고 있는 브라이튼에서 언니들의 남편감도 구해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리디아는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 남편인 위컴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여 얻는다. 리디아와 위컴은 결혼은 하지 않고 애정의 도피행각을 벌인 후 결혼에 이른다.

11) Andrew Wright, H., *Jane Austen's Novel: A Study in Structure*. London: (U of Oxford P, 1957), p. 111.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위컴과 리디아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지만 위컴이라는 목표를 성취한 리디아는 집에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등장한다.

현관에서 리디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확 열리더니 그녀가 방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베넷 부인이 앞으로 달려나가 그녀를 껴안고 열광적인 환영을 했다. ... 그리고 두 사람은 베넷씨에게로 돌아섰다. 베넷씨는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더욱 근엄해졌고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구는 젊은 부부의 뻔뻔스러움이 다시 그를 노엽게 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도 비위가 거슬렸고 제인마저 충격을 받았다. (204)

리디아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인처럼 우유부단하지 않으며, 샬롯처럼 현실적인 문제해결도 고려하지 않는다. 리디아는 위컴을 선택하고 결합하기까지 돈과 관련짓지 않고 현실적인 규약에도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행동을 취했다. 리디아와 위컴의 결합은 분별없는 사랑의 도피 행각으로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결혼으로 묘사된다. 그녀는 일단 결혼만 하면 만인의 부러움을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위컴을 오직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며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인물로 여기는 열정에 의해서 결혼을 원한다. 리디아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부족하고 감정이 앞서는 인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서 행동하고 남성에 대한 열정과 충동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맹목적인 열정만 갖고 도피 행각을 벌이는 리디아의 결혼은 미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무분별한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4. 제인의 순종적 결혼

베넷가의 맏딸인 제인은 외모가 뛰어나며 사려 깊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경박하게 드러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좋게만 보려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태도와 행동은 사람들로

부터 좋은 인상을 갖게 한다. 또한 허약한 체질과 침착한 기질,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사악한 것을 사악하게 보는 것조차 싫어해서 모든 것을 순조롭게만 보려한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을 너무 좋게 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흐리다. 엘리자베스는 사치와 허영심이 있는 허스트 부인과 캐롤라인을 비난하지만 제인은 남을 쉽게 비난하지 않는다.

“정말 언니는 아무나 너무 쉽게 좋아한다니까. 남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지. 언니는 이 세상이 다 착하고 좋아 보이지? 언니가 남의 욕을 하는 걸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난(제인) 너무 남을 쉽게 비난하고 싶지 않거든. 하지만 언제든지 나는 내가 생각한 그대로 말해.”(10-11)

모든 것을 좋게 보는 제인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그녀는 다아시와 위컴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위컴의 악한 면모에 대해서도 위컴의 허물을 덮어주고 좋게만 보려한다. 제인의 이런 성격은 여성들이 모두 천사처럼 순결하고 착하기를 기대하는 도덕적 관습에 얽매어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는 편지 이야기를 하고, 조지 위컴에 관한 사연을 모조리 말하였다. 가엾게도 제인에게 준 타격을 컸다. 제인은 한 개인이 지닌 이런 많은 악들이 전 인류 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서도 한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아시의 누명이 해명되어서 제인의 마음이 좀 기쁘긴 했지만, 위컴이 악인이라는 것을 안 사실을 무마해 주지 못했다. 아주 진지하게 제인은 거기에 어떤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캐내려고 애썼고, 다아시를 끌어들이지 않고 위컴의 결백함을 밝혀주려고 노력했다.(154)

이런 제인의 모습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언니, 소용없어요. 언니는 두 사람을 모두 좋게 생각하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154)라고 충고한다. 심지어 그녀는 빙리와 의 결혼을 방해하는 빙리양의 태도까지도 좋게만 보려고 한다.

“내가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 내 맘이 편해질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걸 난 알아. 캐롤라인은 속이려는 사람을 속일 줄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분이 자기 생각에 속고 있다는 것 뿐이야..”(84)

사람됨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좋게만 보려는 제인의 이러한 태도는 판단력을 기르는데 장애가 되는 성격상의 결함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빙리를 만나 결합하는 과정에서도 수동적이다. 그래서 마음 속 깊이 빙리를 사모하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인의 태도에 대해 샬롯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으며 “제인이 그분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30분이라도 잘 이용해야만 될 거야.”(14)라고 엘리자베스에게 말한다. 이렇듯 당시 여성은 남성을 유혹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면서도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지켜야만 했다.

“하긴 재미있을지도 모르지..” 하고 샬롯은 대답했다. “그런 경우에 슬쩍 세상을 속일 수 있다는 게 말야. 하지만 그렇게 남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 만일 여자가 자기 애정을 그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묘하게 감춘다면 그 사람을 붙잡을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 뒤에 ‘세상 사람들도 다 모르는 일인데,’하고 자위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떤 애정 속에도 감사와 허영의 요소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건 안전하지 못할걸.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 할 계기를 가질 수 있어- 누구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러나 이렇다할 자극도 없이 정말 사랑을 지속시킬 만큼 열정적인 사람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애정을 표시하는 것이 좋아. 빙리씨는 확실히 너희 언니를 좋아해. 그렇지만 언니가 빙리 씨에게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는다면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거야.“ (13-14)

빙리가 아무 말없이 네더필드(Netherfield)를 떠났을 때도 자신의 애정 어린 감정을 접어두고 그를 쉽게 단념하려고 한다.

“ 난 이제 빙리씨가 온다는 것이 유감스럽기까지 해. 대수롭지 않으니까 냉담하게 대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야단들인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뜻이야 좋지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실 거야,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구도 몰라. 빙리씨의 네더필드 체류가 끝나면 난 정말 기쁠 거야.”(228)

그러나 그녀의 감정은 말과는 달리 빙리가 갑작스럽게 네더필드를 떠나 있던 수개월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 빙리에 대한 제인의 애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따라서 마음의 상처 역시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빙리가 돌아와서 제인에게 다가서자, 빙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빙리와의 재회를 기뻐한다. 그녀는 그 동안 상처 받았던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망 없이 빙리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제인이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가 구현하는 수동적이고 착한 여성상의 관습을 그대로 내면화하여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¹²⁾

네더필드 체류 기간 동안 빙리가 제인에게 보인 태도는 누가 봐도 명백히 제인을 좋아하는 모습이었으며 구혼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애기도 없이 네더필드를 떠나 있었던 빙리의 행동은 쉽게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런 비난 없이 빙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제인의 모습에서 당대 소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성격은 ‘good sense’라기 보다는 ‘blindness’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주위 사람들과 사회를 관찰하는 안목이 너무 단순하고 어리석은 탓이라 하겠다. 제인의 모습에서 여성들이 모두 천사처럼 순결하고 착하기를 기대하는 도덕적 관습에 얽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인에게서 당시에 여성에게 가해진 성적기준의 이중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아시가 “당신 언니의 성품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그 마음만은 쉽게 감동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리군에 대해서 베네트양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제가 믿고 싶어 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136).”라고 얘기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12) 미셸 바렛 외.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신현옥·장미경·정은주·역. (서울: 여성사, 1994), p. 81.

18세기의 가부장적 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 여성상은 겸손, 순종, 수동성, 무엇보다도 순결에서 오는 여성다움을 강요했다. 제인은 분명 빙리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품위있는 숙녀”¹³⁾(Proper Lady)로서 자신의 명성을 지켜야 했으므로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단지 미소와 눈빛 정도로 감정을 표현해야만 했다. 이런 소극적인 행동이 결국은 그녀의 애정을 의심하는 다아시에게 빙리를 떼어놓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된다.

“ 그녀의 얼굴 표정과 행동은 개방적이고 명랑했으며 또한 변함없는 애교가 있었습디만, 특별한 호감을 가진 낌새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룻밤 동안 세 밀히 관찰한 끝에, 비록 베넷양이 빙리 군의 호의를 즐거이 받아주고는 있을 망정 빙리 군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136)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제인의 소극적인 행동이 다아시의 눈에 호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제인이 빙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아시는 친구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빙리를 떠나게 한 것이다. 이처럼 착하기만 하고 소극적인 제인의 태도에서 당시여성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제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내면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역할 때문이다. 아버지과 어머니 품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딸인 제인은 가정을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원천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인은 신체적으로 허약하다. 그녀는 캐롤라인의 초대를 받고 빙리집에 초대된다. 그녀는 빙리 집에 가기 위해 말을 타고 가다가 비를 맞는다. 결국 제인은 빙리의 집에서 며칠 동안 앓아 눕게 된다. 당시 이상적인 여성상에 의하면 제인처럼 가녀리고 약한 신체를 지닌 모습을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았다. 제인은 또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뒤떨어지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처음 메리톤 무도회에

13) Mary Poovey, *The Proper Lady and Woman Write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4), p. 85.

서 다아시가 빙리를 만났을 때에도 다아시는 빙리에게 제인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말한다. 또 한정상속제¹⁴⁾의 혜택을 받은 콜린스가 베넷집안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하여 자신이 받은 유산을 베넷 집안에게 보상하려 할 때도 제인을 제일 먼저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려 한다. 역시 제인의 결혼 상대자가 되는 빙리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도 제인이다. 빙리는 아름다운 외모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인을 사랑하게 된다.

제인과 빙리의 결합은 가장 이상적이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엘리자베스는 제인과 빙리의 결합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둘의 성품이 따뜻하므로 그들이 결합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들의 애정은 탁월한 이해심과 더할 나위 없이 고결한 제인의 성품과, 빙리씨와 제인 두 사람 사이의 감정과 취미의 유사성을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빙리씨가 기대하는 행복은 합리적인 바탕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엘리자베스는 진심으로 믿었다.(226)

제인은 그동안 자신의 판단 없이도 가정의 따뜻한 품에 있기만 하면 현실과의 대치 없이도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 제인의 부족한 판단력은 엘리자베스가 보충해 줄 수 있다. 제인은 자신보다 판단력이 뛰어난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의 판단을 평가받을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들은 엘리자베스와 같이 해결해 나가면 되었다. 그러나 빙리와 결합한 후에는 엘리자베스로부터 독립하고 중류층인 자신의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빙리도 제인처럼 어려움 없이 온건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인물이다. 빙리는 제인과의 사랑에 있어서 다아시나 자기 여동생 등에 의해 너무 쉽게 영향을 받을 만큼 결단력이 부족하다. 엘리자베스는 제인과 빙리와의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그 원인이 빙리의 결단성 부족이라 생각한다. 빙리는 다아시의 결정에 의해 네더필드를 떠나게 되고 또한 다아시의 결정에 의해 제인과 결혼에 이르게 된다. 빙리를 믿고 생활

14) 한정상속제란 형제 중에 다행히 남자가 있을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출가할 때 부모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소간의 지참금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제도였다.

을 해야 하지만 빙리도 현실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제인은 세상에 나와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야 한다. 그녀의 유약하고 심약한 성격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엘리자베스나 다아시 혹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제인의 집안은 몰락해 가는 중류층 가족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인은 집안의 맏딸로서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고 이것이 가족과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제인은 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을 이상적,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당시의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심리적, 내부적인 사적 환경에서 남성에게 위안감을 주는 역할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외부의 물질세계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내면적으로 착하고 수동적인 제인의 행동은 당시 여성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덕목이다. 제인도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우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사고와 태도가 자리 잡은 것이다.

제인과 빙리의 결혼은 전통적인 관습을 추종하는 것이며 비슷한 처지의 사랑하는 사이에 맺어진 이상적인 결합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규범이나 제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없이 받아들인다.

Ⅲ. 엘리자베스의 자기실현적 결혼

엘리자베스는 총명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여성이다. 모든 이의 시선을 끌만한 대단한 아름다움을 비록 지니지는 못했으나 그녀는 지혜와 당당함을 갖추어 여유로움과 우아함을 겸비하였다. 그녀는 당시 여성상에 따르지 않는 비전형적인 여주인공(unconventional heroine)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지성과 예리한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던 바람직한 여성상은 침묵하고 순종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재치나 지성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들보다 우수한 자신의 기질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외적인 자질보다는 정신적인 개발을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다. 그녀는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모든 과정을 배우의 현장으로 이용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분별력의 한계를 수정하였다. 또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는 등 늘 자기발전에 정진하여 그녀는 고급교육을 받은 인물들을 능가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러한 면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서 드러난다. 만약 관습적인 여성윤리만을 따르는 여성이었다면 콜린스나 다아시와의 결혼이 일찍 이루어졌을 것이고, 충동적인 감성이 강했다면 위컴과의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엘리자베스는 여성에게 부과된 당시의 사회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성과 이성, 분별력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판단력을 과신한 나머지 당시 통념으로는 대담하고 무리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는 언니 제인이 캐롤라인 빙리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네더필드에 가던 중 소나기를 만나 감기로 앓아 눕게 되자 그녀를 문병하러 3마일의 진흙탕 길을 걸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성을 보인다. 엘렌 무어스(Ellen Moers)는 엘리자베스의 이러한 행동이 여성의 독립성을 상징한다¹⁵⁾고 말하고 있다. 엘리자베스가 네더필드에 도착했을 때, 빙리 양은 그녀를 보고 이

15) Ellen Moers, *Literary Woman*.(New York: Doubleday, 1976), p. 130.

렇게 외친다.

“다아시 선생님은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의 누이가 그런 짓을 하는 건 보고 싶지 않으시겠죠?” 라고 빙리양이 말했다. “그야 물론이죠”.

“3마일이든 4마일이, 5마일이든 거리야 상관없지만 종아리까지 흠투성이 된 채 그것도 혼자서 걸어오다니, 대체 어쩔 생각이었까요! 보나마나 독립심을 보여주려는 속셈이겠지만 속 들여다보이는 수작이죠. 예의라는 건 건넛마을 불 보듯이 아주 우습게 여긴 다니까요.”(24)

사실 예절이 법보다 중요했던 시대에 점잖은 집안의 딸이 보여준 이런 모습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모습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그녀가 지닌 경제적 약점과 여자에게 부여되는 열등한 지위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저항의 모습으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몬드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의 표현을 빌면, 엘리자베스의 그러한 행동은 “강력한 자아와 그 자아를 위협하는 세계의 갈등 결과”¹⁶⁾라고 평하고 있다. 엘리자베스의 이런 모습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인상의 가냘프고 섬세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모습이고 파격적인 자유정신의 발로이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은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 규범에 견주어 보면 전혀 숙녀답지 못한 태도이다. 따라서 빙리 집에 도착한 그녀를 보고 빙리 일행이 깜짝 놀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가정교사는커녕 제대로 된 정규교육도 받아보지 못한 엘리자베스는 이성과 감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즐겨 나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새롭게 접하는 환경을 배움의 현장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한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편파적인 정규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능가하는 인물이 된다. 다아시의 누이동생 조지아나나 캐서린 부인의 딸 버그양과 같은 상류층 여자들만 단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예쁘게 걷는 법 등을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엘리자베스는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다른

16)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Trans. and Ed. H. M. Parshley. (New York: Knopf, 1953), p. 28.

여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지성, 판단력, 분별력 등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오만성을 재치있게 받아 넘기면서 그것에 당당하게 맞선다. 다아시가 “내 주의를 끝만큼 충분히 아름답지 못하군”(12)이라고 엘리자베스와 춤추기를 거부하자 엘리자베스는 이에 당황하지 않고 그것을 농담거리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말하여 웃어넘긴다. 그리고 또한 엘리자베스는 당대의 일반적인 규범과 그것에 의거한 사람들의 경직된 가치관과 태도에 자신의 지성과 재치를 바탕으로 맞선다. 그녀는 불합리한 면을 재치 있게 희화화해 버리려 한다. 다아시를 조롱할 수 없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를 조롱할 수 없다구!...그것은 예사롭지 않은 특권이군”(39)이라 말하며 그 자체를 조롱한다. 엘리자베스의 웃음은 그녀의 정확한 도덕적 판단에서 비롯되며 그 사실이 그녀가 비판적인 관점을 대변하는 인물이 되게 한다.

당시의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해 빙리양은 여성은 피아노를 배우고 자수를 익히며 걸음걸이나 손님 접대에 관한 예절을 배우고 독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교육은 여성 자신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따름이다. 엘리자베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기존의 예법과 비교하면 다소 무례하고 거칠어 보인다. 그렇지만 엘리자베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이다. 당시 여성에게 가해지던 사회적인 억압이나 편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설사 그 판단이 잘못되어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그녀의 자의적인 판단력은 행동하는 인격체로서의 모습을 부각시켜 준다.

엘리자베스는 무엇보다도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 그녀는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여성들을 속박하는 한정상속의 불합리를 다른 보통 여성들과는 달리 날카롭게 인식한다. 그녀는 자기 집안의 한정상속자인 콜린즈로부터 청혼을 받고 좋아하기는커녕 매우 불쾌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청혼을 거절한다.

“아뇨, 훌륭한 분에게 고통을 주는 데 있어서 우아함을 나타내는 것 같은 것

은 전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죠. 결혼신청에 의해서 받은 영예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 드리겠어요.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음이 허락치 않는군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당신을 괴롭히려고 하는 점잖은 여자라고는 다시는 생각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진실을 얘기할 줄 아는 이성을 지닌 여자 라고 생각해 주세요.”(76)

엘리자베스가 콜린스의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지위와 안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콜린스의 청혼을 단번에 거절해 버린다. 그녀의 거절은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해석되어지고 수줍어서 하는 말이라고 잘못 전해진다. 이러한 주위의 해석은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즉 여기서 자신의 주관에 따른 여성의 거절이 남성에게는 자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교로 해석되고 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에게 자신을 ‘이성’을 지닌 여자로 생각해 달라고 요구한다. 여기서 ‘이성’이란 선입견이나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니라 관습 때문에 뛰어넘기 힘든 장벽인 남성의 태도와 맞서는 여성의 주장을 의미한다. 콜린스의 태도가 과장되어 있고 아침하기를 즐기며 신분에만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인물이고, 그의 청혼이 엘리자베스에게 애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그의 청혼을 거절한다. 사실상 그녀의 청혼 거절이 주는 의미는 결혼이란 사회 제도를 통하여 남성이 여성에게 제공되는 물질적, 사회적 보장에 대한 거부행위이며 자신의 원리 원칙에 따른 행동과 판단의 결과이다. 엘리자베스는 결혼문제를 일반적 통념이 아닌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사회가 당연시하는 결정론적인 여성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는 자신과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믿고 있던 친구인 샬롯이 세속적인 이익과 가정적인 안정을 추구한 나머지 콜린스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자기실현이라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한다. 엘리자베스의 관점에서 샬롯이 콜린스의 결혼을 승낙한 것은 그녀가 당대의 보편적인 결혼관에 굴복해 버렸음을 의미한다. 엘리자베스의 고민은 콜린스에 대해 단순히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버리고 경제적, 외적 조건에 쉽게 타

협하려는 샬롯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가 콜린스의 청혼을 거절한 직후 샬롯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데서 두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샬롯은 당시 여성들의 결혼관에 가장 근접한 현실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빼어나지 못한 외모, 변변치 못한 재산, 27세의 노처녀로 그녀의 미래는 친척들의 원조에 매달리거나 가정교사가 되는 것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샬롯은 콜린스와의 결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원칙과 주관에 따라 행동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리디아와 위컴, 샬롯과 콜린스의 결합은 도덕성이 빠졌으므로 완벽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의 도덕성을 실천하는 방식은 적극적이며 반항적이다.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원하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엘리자베스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이다. 엘리자베스가 제인을 보기 위하여 빙리 집에 가고 있는 모습에서도 그녀가 얼마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감기에 걸린 제인을 보기 위하여 수 마일에 이르는 진흙투성이를 혼자 걸어 빙리 집에 도착한다. 지저분해진 엘리자베스를 보고 허스트 부인과 캐롤라인은 단정하고 다소곳해야 하는 여자가 험한 길을 헤쳐 온 것에 대해서 엘리자베스를 힐난한다. 그러나 오히려 빙리와 다아시 만은 엘리자베스의 행동을 칭찬한다.

“그러나 난(빙리)을 전혀 몰랐어요. 오늘 아침 엘리자베스양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건강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보느라 더러운 속치마 같은 건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

“전혀 나(다아시)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눈이 더욱 빛나던데요.”(25)

레이디 캐서린은 엘리자베스가 당시 여성들이 받던 교육을 받았는지를 점검한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는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은 조금씩 할 줄

알지만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가정교사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책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그러면서 만약 그녀가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를 알았더라면 가정교사를 두도록 충고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소개시켜준 집들에서는 모두 만족하였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통하여 레이디 캐서린 역시 그런 교육을 받은 여성을 이상적인 여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레이디 캐서린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런 교육을 다 받았을 그녀 딸의 모습은 허약하고 작으며 아픈 모습으로까지 비추어진다. 이렇게 음지 식물과 같은 인상을 주는 드보그 양의 모습은 바로 부와 권력 하에서 이상적으로 키워진 여성의 허점을 드러낸다. 더욱이 그녀는 아픈 인상만큼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즉 부와 권력을 휘두르는 어머니 밑에서 그녀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레이디 캐서린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을 정도로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부와 권력 앞에서 자신을 당당히 표현한다.

콜린스 부부가 거주하는 목사관을 방문한 엘리자베스가 캐서린 부인의 초청을 받아 일행과 함께 로징스 영지를 찾아갔을 때 캐서린 부인은 매우 오만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그들을 맞아들인다. 처음 이 집을 보았을 때 엘리자베스를 제외하고 루카스 씨 가족 모두는 드보그 양의 재력에 놀라면서 그 집의 당당한 기세에 놀려버린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런 부의 상징인 그녀의 집에 대해 경탄하지 않는다. 캐서린 부인은 엘리자베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전체를 멸시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엘리자베스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것과 딸만 많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교양을 못 갖추었다는 것 등, 그녀의 약점이 될만한 것은 모두 들추어낸다. 그럼으로써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충분히 모욕하여 농락했다고 생각하나 엘리자베스는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캐서린 부인의 권위적인 말에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이것은 권위와 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식의 표현이다.

캐서린 부인은 일방적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와의 결혼을 단념하라고 추궁한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캐서린부인이 직접 룡본으로 찾아와서 조카인 다아시는 이미 어려서부터 자신의 딸과 정혼한 상태

라고 주장한다.

“내 딸과 조카는 천생연분이요. 그애들은 외가쪽으로 같은 귀족 혈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친계로는 작위는 못 받았지만, 젊잖고 존경할 만 한 오래된 가문이지. ……(245)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의 태도에 절대 굴하지 않으며 계급적 편견에 의해 사람의 인격이 규정되는 것을 거부한다. 캐서린 부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넷 집안의 열등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들먹이면서 마구 무례한 행동을 한다.

“…… 어림도 없어. 스스로의 행복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나서 행동해야 할 거요.”

“조카님하고 결혼해도 그런 신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어요. 그분은 신사이고 전 신사의 딸이니까 우린 동등합니다.……제 친척들이 어떻건 간에 조카분만 이의가 없다면 부인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엘리자베스는 말했다.(245)

캐서린 부인은 남자의 가치란 전적으로 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엘리자베스는 남자를 독자적 인격을 갖춘 존재로 파악하려 한다. 캐서린 부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심한 모욕을 주면서 다아시를 단념시키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자신도 떳떳한 신사의 딸이라고 외치면서 당당하게 맞선다. 엘리자베스는 캐서린 부인에게 당돌하게 자신의 주장을 표출한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상류층의 허세와 권위의 실상을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우린 동등합니다”(we are equal, 245)이란 외침은 캐서린 부인의 권력과 신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이다.

당대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관습과 규범에 당당히 맞서는 엘리자베스의 활력은 그녀가 다아시의 첫번째 청혼을 거부할 때 그 절정에 달한다. 엘리자베스가

처음에 다아시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배우자의 집안 배경을 중시하는 사회 통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아시는 엘리자베스의 언니인 제인이 보잘 것 없는 친척관계 때문에 가문좋은 남자와 결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빙리의 의견에 동의할 정도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결혼관을 지닌 남자이다. 그에게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신사계급으로서의 교양을 갖추지 못한 여성이고 여동생 리디아는 천박하며 외삼촌 가디너씨는 런던에서 장사하는 상인이고, 이모부 필립스씨는 메리튼에서 변변치 못한 변호사로 일한다는 사실 등은 엘리자베스를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엘리자베스의 친척들이 낮은 신분이 아니었다면 그가 그녀에게 이끌렸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된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가 그녀에게 보여준 오만한 태도와 빙리와 제인의 결혼을 방해하는 사실을 통해 그가 관습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반발심을 느꼈다. 그러므로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청혼하면서 그녀의 열등한 신분이 그의 신분 하락을 의미한다는 점을 암시하자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청혼을 강하게 거부해 버린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의 청혼을 계기로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경제적인 부의 획득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만한 태도와 당연히 자신의 청혼을 승낙하리라는 그의 자부심에 강하게 거부감을 느껴 청혼을 냉정하게 거절한다. 특히 모든 여성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다아시의 청혼을 그녀가 물리치는 것은 그녀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주관과 함께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심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결국 다아시의 청혼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거절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하는 맹목적인 도덕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이라면 으레 세상이 알아주는 상층계급 남성의 청혼을 받는 즉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락할 것이라는 다아시의 뿌리깊은 계급관과 남성 우월적인 여성관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태도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당대 사회의 일반적 결혼관에 비추어 볼 때 가문의 명예를 먼저 고려하여 결혼해야 하는 다아시와 같은 위치에 있는 남성이 엘리자베스처럼

자신보다 하층계급에 속하는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거절당한 후 다아시가 보낸 편지를 받고 엘리자베스는 다아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행위 또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근거 없는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어머니, 여동생들, 심지어 아버지가 자질과 인격면에서 신사계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다아시의 비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바로 그 점이 제인, 빙리의 결혼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다는 다아시의 지적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녀는 수치를 느끼게 되는데 이 수치심은 엘리자베스의 심리적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아시가 제인의 결혼을 방해한 이유와 위컴의 자기 중심적인 변명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 엘리자베스도 자신의 편협했던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된다. 즉 엘리자베스는 상류층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편견과 더불어 위컴의 편협한 말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다아시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특권적인 귀족계급에 비추어 다아시를 보고 있었지 다아시라는 남성의 인격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이 일을 통해 자신도 또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만심을 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위컴에게 속아 위컴이 다아시에 대해 말하는 사실을 전혀 비판 없이 수용하였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날씬하고 큰 키, 잘생긴 그리고 일년에 10,000파운드의 수입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아시의 태도는 사람들을 역겹게 했고 그의 인기는 똑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더비셔에 있다는 그의 막대한 토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가 혐악하고 기분 나쁘며 친구인 빙리씨와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12)

엘리자베스와 다아시가 처음 만나게 된 네더필드의 무도회에서 다아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을 엘리자베스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위

컴의 말과 제인의 사건으로 확신을 가지게 된다. 밥(Howard S. Babb)은 엘리자베스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그와 말해보기도 전에 다아시에 대해서 확고하게 편견을 갖게 된다. 이 편견은 “그는 상냥하지 못하고 오만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과 그의 첫 인상에서 그녀의 마음이 심어졌다.”고 지적한다.¹⁷⁾ 다아시는 첫 번째 청혼과 다른 두 번째 청혼을 하고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얻게 된다. 다아시가 위컴과 리디아를 금전적 곤란으로부터 도와주고, 제인과 빙리의 결합을 돕고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자신보다 낮은 신분인 가디더 부부에게 존경을 보였기 때문만이 아니다. 다아시는 첫 번째 청혼과는 달리 두 번째 청혼에서는 그녀가 처해 있는 주변환경, 가족 문제, 신분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현명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 다아시는 엘리자베스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고 웨인슈머(Weinsheimer)는 말한다.¹⁸⁾ 이런 모습을 통해 엘리자베스는 첫 번째 청혼 이후 다아시의 태도와 사람이 달라졌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다아시의 두 번째 청혼을 받아들인 후 엘리자베스는 그에게 어떤 점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묻는데 이에 대해 다아시는 “쾌활한 정신”(The liveliness of your mind)(262)에 이끌렸다고 대답한다. 이 말은 다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엘리자베스의 신분이나 지참금이 아니라 그녀의 정신적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녀의 에너지, 활력, 명랑한 기질은 다아시를 이끄는 힘이고 이것이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와의 결혼에 가져가는 지참금인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묵인되어온 이상적인 여성의 자질인 섬세함, 관대함, 자상함과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성적인 특질로 여겨졌던 합리적 지성을 갖추었고 활발하고 재치있는 언어구사력을 보임으로써 당대의 기존 여성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설레웨이(Salloway)는 엘리자베스가 주변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자기 스스로 판단, 행동하는

17) Howard S. Babb, “Dialogue with Feeling: A Note in *Pride and Prejudice*”, *Pride and Prejudice*. ed. Donald J. Gray. N. Y.: (W · W · Norton & Company Inc. 1966), p. 422.

18) Joel Weinsheimer, *Jane Austen Today*,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75), p.25.

활력에 찬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고 보고 있다.¹⁹⁾ 이들의 비평은 엘리자베스가 남녀 모두에 대해 진실한 안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자베스는 애정이 바탕이 되는 분별 있는 결혼과 돈이 목적인 결혼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용기와 판단력이 없어서 다아시의 첫 번째 청혼을 받아들였다면 돈이 목적이 되는 결혼이 되어 버렸을 것이고, 당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인식에 순응해 버리는 존재가 됐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가디터 부부가 계획한 여름 여행에 함께 하는 기회를 통해 펨벌리(Pemberley)를 방문한다. 그녀가 다아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의 저택 펨벌리를 방문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펨벌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에게 물리적인 배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상류계층의 허세를 구별하는 정확한 인식력을 갖게 된다. 허례 허식에 가득 차 있는 상류계층의 대표적 인물인 레이디 캐서린의 저택 로징스와는 반대로 자연 그대로의 조화를 살린 안정된 펨벌리 저택을 방문하는 장면은 엘리자베스가 다아시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높은 지대에 세운 크고 아름다운 석조 저택이었다. 뒤로는 높고 울창한 산마루가 드리워져 있고 앞쪽으로는 개울이 어떤 자연의 조화로 물이 불어 난 채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양편의 둥근 외양에만 치중된 것도 또 잘못 장식된 것도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즐거웠다. 그녀는 펨벌리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은 본 적이 없었다.(167)

브로워(Brower)는 "펨벌리는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데 있어 근원적인 역할을 한다. 또 이 펨벌리의 이미지는 이성적인 결합의 상징으로 쓰여지는데, 이는 그 이미지가 엘리자베스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 최

19) Sulloway Alison G. *Jane Austen and the Province of Womanhood*. (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9), p. 175-6.

종적으로 얻게 되는 안정된 상태를 상징한다.”²⁰⁾고 말한다. 엘리자베스는 그곳의 자연스러운 안락함에 감탄한다. 그리고 우아한 내부를 보고 그녀는 저택의 주인을 이해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조화는 도덕적 성격과 모범성을 나타내며 팸벌리의 존재는 진정한 인간적 존엄성을 지닌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미래의 삶을 암시한다.

몇몇 비평가들은 그녀의 결혼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목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한정상속자인 콜린즈의 청혼을 거절한 사실과 더 큰 물질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아시의 청혼을 처음에 거절했던 점을 보면 그녀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부가 결혼의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령 엘리자베스의 경제적 동기를 완강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엘리자베스의 선택은 단순히 경제적 동기만으로 결정을 한 샬롯의 경우와는 다르다. 비평가 토니 타너는 이 두 선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녀가 인정한 것처럼 비록 팸벌리가 매력적일지라도 경제적 압력에 의해 결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이다. 그것은 샬롯이 순간적으로 한 선택보다 더 많은 인식, 지식, 그리고 지성에 기반을 둔 선택이다.²¹⁾

팸벌리는 아름다운 숲과 조화롭게 배치된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 다아시의 저택으로서 예술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소이다. 엘리자베스는 팸벌리 저택을 보면서 다아시의 꾸밈없는 인품과 탁월한 미적 감각 그리고 뛰어난 도덕성을 확인하고 그를 바람직한 배우자감으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다아시에게 가졌던 편견을 버리고 그의 개인적인 미덕과 인격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력이 없는 당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혼이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 팸벌리의 안주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자기 실현의 한 방법

20) Reuben Brower, 'Light and Bright and Sparking' *The Field of Ligh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p. 173.

21) Tony Tanner, *Jane Aust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p. 38.

이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엘리자베스조차도 당대의 여성과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를 결코 도의 시 할 수 없었다는 절박한 여성문제가 제기된다. 그녀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우월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와 다아시의 결합은 용기 있고 판단력 있는 여성조차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고 그 남성이 자신의 내적인 자질을 높이 평가해준다는 사실에 만족한 채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한다.²²⁾

엘리자베스의 가슴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너무나 벅찼으며 주목할만한 곳과 경치를 두루 살펴보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차가 반 마일쯤 서서히 올라가자 꽤 높은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숲은 끝나고 길이 좀 험하게 돌아 들어간 골짜기 건너편에 썸벌리의 저택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한 눈에 들어왔다. 높은 지대에 세운 크고 아름다운 돌집이었다. ... 썸벌리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서투른 꾸밈으로 인해 깨어지지 않은 곳을 본적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썸벌리의 장관을 찬양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이 썸벌리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것이라고 느꼈다.(158-159)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다아시가 한 때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면서 그가 다시 구혼해 올 가능성을 생각한다.

그렇게도 몹시 오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고 생각하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솟았다. 왜냐하면 그의 이런 변화는 사랑, 그것도 열렬한 사랑에 기인하는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녀가 받은 감동은 비록 명확하게 형언할 수 없는 없지만 좌우간 불유쾌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그래서 좀 더 복돋워 주어도 좋을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감사했다. (181)

썸벌리의 하녀인 레이놀즈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다아시의 인간성을 이해하

22) Nancy Armstrong, *Desire and Domestic Fiction*. Oxford: (Oxford UP, 1989), p. 49.

도록 도와준다. 그의 집에서 일해온 하녀의 말을 통해 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자신의 그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

“ 다아시님을 네 살 때부터 쭉 봐왔지만 내 평생 한마디라도 화내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칭찬은 다른 어떤 칭찬과는 비할 수 없는 것이었고 엘리자베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다아시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 …… 제가 항상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어려서 상냥했던 사람은 커서도 온화하더군요. 그리고 다아시님은 항상 세상에서 제일 상냥하고 관대한 마음씨의 소년이었어요.”(169)

그녀는 펴벌리를 보면서 다아시를 이기적인 상류층의 자녀가 아니라 그의 영지와 자신에게 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펴벌리 건물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다아시의 진정한 모습을 느끼게 되고, 엘리자베스는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그 정원에 들어섰고, 집안에서 다아시의 초상화를 본 순간 그녀가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모습에서 그녀의 변화된 감정이 잘 드러난다.

이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이 한창 사귄 때 그에 대해 느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감정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었다. 레이놀즈 부인이 다아시에게 하는 칭찬은 절대로 하찮은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총명한 하인의 칭찬보다 더 가치가 있는 칭찬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오빠로서 지주로서 주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그의 보호 아래 있는가를 엘리자베스는 생각해 보았다. …… 두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 그린 캔버스 앞에서 있을 때, 엘리자베스는 일찍이 느껴본 적이 없었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그의 호의를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그 호의의 따뜻함을 상기하고 그의 표현의 부적당함을 부드럽게 이해했다. (170-171)

이제 엘리자베스는 레이놀즈 부인의 말과 자신의 판단력을 종합하여 다아시의 인품과 능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엘리자베스는 집안에서 다아시의 초상화를 마주하게 된다. 다아시의 초상화를 통하여 그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던가를 깨닫게 된다.

엘리자베스는 알고 있는 얼굴만을 찾았다. 드디어 하나의 그림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그녀는 다아시의 놀랄만큼 닮은 초상화를 보았던 것이다. 그곳에는 엘리자베스도 가끔 본적이 있는 표정으로 다아시가 엘리자베스 자신을 바라볼 때 보여주었던 미소 가득 먼 얼굴이 있었다.(170)

마침내 다아시의 진면목에 대한 발견의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그에 대한 부족한 이해심에서 비롯된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눈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게 된다. 이처럼 이상적인 결혼이란 진지한 인간성을 갖추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 존경에 뿌리를 둔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만약 엘리자베스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남성 의존적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열등시되는 여성의 위치에 위축되어 수동적으로 행동했다면 둘의 결혼은 결코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두 사람의 결합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익을 주는 결혼이므로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트릴링(Trilling)은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풍요롭고 규모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행복과 궁합이 맞는 결합 속에, 질서와 평화, 명예, 그리고 아름다움의 목적을 이룬다.²³⁾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결합은 상호간의 진실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아 인식을 통해 정신적인 성장을

23) Gonell Trilling, *Sincerity and Authentic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p. 327.

거친 후에 맺어진 결합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 종속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명한 엘리자베스는 분별력과 관대함이 자신의 모든 소망, 즉 낭만적인 결혼의 실현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다아시씨가 성품과 재능에 있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이해력과 기질은 비록 엘리자베스와는 비슷하지 않았으나, 엘리자베스가 바라는 모든 것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유익한 결합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여유 있고 쾌활한 모습에서 다아시씨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태도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다아시씨의 판단력과 견문과 세상에 관한 지식에서 엘리자베스는 매우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4)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상호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가장 완벽하게 결합한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는 각자 자신의 결합을 깨닫고 사회의 통념과 가치관에 구속되지 않는 자아 인식을 하며 성공적인 결혼을 하게 된다.

남성의 결정권이 우선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배우자 선택은 여성에게 있어서 미래의 인생을 위한 유일무이한 기회이며 자신의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진지하게 검토하고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사회가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의 운명을 넘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그녀가 보여준 독립적인 정체성은 남편감을 쫓는 일에 매달리는 당대의 여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이것은 결국 남편이란 합법적인 재산이고 그 재산을 쫓는 것이 여성의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보편적 진실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여성의 경제권과 독자적인 사회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의 구조적 제약에서 비롯된 결혼풍속에 담긴 물질만능 풍토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엘리자베스의 결혼은 살롯의 결혼처럼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결혼하여 남성에게 예속된 결혼도 아니며, 리디아의 무모한 열정과 같은 지나친 감정위주

의 결혼으로 인해 빚어진 여성의 무분별한 사고로 이루어진 결혼도 아니다. 그녀의 결혼은 세속적 여성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아를 지키며,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분별력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다.



IV. 결 론

『오만과 편견』에서 그려진 이상적 결혼의 의미는 오스틴이 살았던 시대의 독특한 여성역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오스틴은 이 작품에서 가부장제와 남녀 불평등 제도의 모순 속에서 여성이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항하고 정신적인 각성과 성장을 통하여 분별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오스틴이 살던 시대 즉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여성들은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신념이 없었다. 여성의 모든 사회적 표준과 이상, 의무는 가능한 한 재산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갖가지 취미와 교양 있는 태도만 배우려고 애썼지 학문적이고 내적 충실을 이루는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여성들은 독립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남성들의 눈에 아름답고 교양 있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혼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 생활을 보장하는 방편이고 하나의 안정된 직업과도 같은 것이다. 오스틴이 살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와 어울려 잘못된 결혼관과 결혼 풍습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스틴은 이 작품을 통하여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타락하고 속물적인 결혼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결혼이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봉건 가부장제 하에서 힘없는 여성이 처하게 된 현실에 대한 재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스틴은 여성이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모순된 사회구조와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당면하게 되는 여성의 현실과 계약을 그리려 했다. 등장인물 샬롯은 결혼에 대해 타협적,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속물적인 콜린스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그의 확실한 재산 상속권 때문이었다. 그녀의 타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결혼은 그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원래 천성은 곱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노처녀가 된 샬롯은 재정적인 안정과 독립의 수단으로 콜린스와의 결혼을 택한 것이다. 그녀가 처한 현실은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

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샬롯의 결혼관과는 대조적인 인물로 리디아는 당시대의 관습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 능력이 없는 인물이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사회에서 인식되는 규범과는 별개로 작동된다. 리디아는 당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결혼배우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서 벗어나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리디아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행복한 미래 생활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남성에 대한 일시적인 열정 때문이다. 그래서 리디아는 과격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반발하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만과 편견』 등장 인물 중에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덕목을 맹목적으로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인물은 제인이다. 제인의 관대한 성격과 아름다운 외모는 당시의 적절한 배우자감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오스틴이 제인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당시 여성들이 구비해야 하는 덕목들을 제인이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제인의 모습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자아 성숙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 자아실현적인 결혼에 성공하는 여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는 주관이 강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고도의 안목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엘리자베스는 가부장 체제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녀는 한 정상속이라는 불합리한 재산 상속제도와 부족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실현을 이룩하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사회가 규정해 놓은 여성상의 한계를 탈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이러한 엘리자베스는 18세기 말 남성 위주의 가부장 체제에서 여성들을 구속하는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당당히 항변하는 독자성을 지닌 여성으로 부각된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단지 안정된 생활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열정으로 선택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자아 발견과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행복한 결혼에 이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인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살

피봄으로써 진정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단순히 결혼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결혼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주인공의 끊임없는 자아발견과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대가의 의미에 대해 주된 관심을 주었다. 엘리자베스가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 그 시대의 여성이 당면하고 있던 현실과 상황을 부각시키고 그러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서 자아 발견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곧 이상적인 결혼 상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녀의 최종선택이 귀족 남성과의 안정되고 부유한 결혼이고 이런 면은 당대 현실에 순응하는 면모를 보여 주기는 하지만 발랄하고 진취적인 엘리자베스의 모습은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상당한 정도 탈피한 것이라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오스틴은 가부장제 사회의 모순된 실상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과정에서 구속적인 사회 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하는 여성의 바람직한 결혼의 모습을 창조해 냄으로써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각성을 촉구하고 미래사회에서 여성이 담당하게 될 막중한 역할에 대해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ibliography

I . Text:

Austen, Jane. *Pride and Prejudice*. Ed. Donald J. Gray. New York: W.W. Norton, 1996.

II . References:

김경진. 『제인 오스틴 - 생애와 작품세계』.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5.

김남국. 「*Pride and Prejudice*에 나타난 Elizabeth의 자기 인식」. 『영어영문학』, 서울: 한국영어영문학회, 1986.

곽지혜. 『Jane Austen의 *Pride and Prejudice*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바렛, 미셸 외.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신현옥·장미경·정은주·역. 서울: 여성사, 1994.

박은영. 『*Pride and Prejudice*의 여성인물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2.

박형숙.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육대학원, 2000.

실비아, 윌비.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이지은. 『*Pride and Prejudice*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장정희 · 조애리. 『페미니즘과 소설 읽기-19세기 영국소설에 나타난 여성』. 서울: 동인, 1998.

조운숙. 『*Pride and Prejudice*에 나타난 이상적 결혼을 위한 개인적 자질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0.

Alison G, Sulloway. *Jane Austen and the Province of Womanhoo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9.

- Armstrong, Nancy. *Desire and Domestic Fiction*. Oxford: Oxford UP, 1989.
- Babb, Howard S. "Dialogue with Feeling: A Note in *Pride and Prejudice*",
Pride and Prejudice. ed. Donald J. Gray. N. Y.: W · W · Norton &
Company Inc. 1966.
- Brower, Reuben. "Light and Bright and Sparking" *The Field of Ligh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 De Beauvoir, Simone. *The Second Sex*. Trans. and Ed. H. M. Parshley. New
York: Knopf, 1953.
- Drew, Elizabeth. *The Novel*.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 Gisborne, Thomas. *Enquiry into the Duties of the Female Sex*. London:
Cadell and Devies, 1797.
- Gooneratne, Yasmine. *Jane Auste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Jave, Stuart M. *Some Words of Jane Auste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 MacDonagh, Oliver. *Jane Austen: Real and Imagined Worlds*. Connecticut: U
Of Yale P, 1991.
- Millet, Kate. *Sexual Politics*. New York: Doubleday, 1970.
- Moers, Ellen. *Literary Woman*. New York: Doubleday, 1976.
- More, Hannah. *Strictures on the Modern System of Female Education*. 2
vols. London: Cadell and Davies, 1799.
- Poovey, Mary. *The Proper Lady and Woman Writer*.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84.
- Tanner, Tony. *Jane Auste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Thompson, James. "Courtship, Marriage and Work." *Between Self and World*"
The Novel of Jane Austen, Pennsylvania: U of Pennsylvania State P,
1988.
- Trilling, Gonell. *Sincerity and Authentic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Weinsheimer, Joel. *Jane Austen Today*,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75.

Wright, Andrew H. *Jane Austen's Novel: A Study in Structure*. London: U of Oxford P, 1957.



<Abstract>

Ideal Marriage in *Pride and Prejudice*

Oh, Eun Kyoung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 Soo

Patriarchal and snobbish contemporary social climate contributed to having an improper view and customs of marriage rampant when Jane Austen was alive. In *Pride and Prejudice*, the author described how a woman became awakened, sensible and grew up against all the odds in contradictory society characterized by patriarchy and gender inequality. She keenly pointed out that indecent, corrupt marriage practices were prevailing on account of worldly reason and social atmosphere of downplaying women, and she posed a question about contemporary social reality, namely how poor women had to lead their lives in feudal, patriarchal system where marriage was the only way for them to get out of their situations.

In this novel, a view of marriage governed by male chauvinism was taken for granted. Charlotte was portrayed as a woman who chose loveless marriage just to seek economic security. From her marriage, it could be inferred how contemporary disadvantaged women had to live, and she was a good example of a woman who adjusted herself to snobbish society without raising any questions about that. Lydia committed a fault by running away with Wickam on the spur of the moment withou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5.

getting married, just being fascinated by his appearance. They were never ashamed of their stupid and shameful conduct. Jane was good-looking and obedient enough to conform to contemporary biased standard. She was good-natured and looked only at the positives of, other people, but she was too passive to express her own desire or feelings candidly, and failed to make a discerning judgment of her reality.

Contrasted with these three female characters , Elizabeth was self-assertive, active, intelligent, cool-headed and yet warm-hearted in dealing with love affairs. Her perpetual self-examination served to facilitate her growth, and she had a sharp insight to look at reality in a critical manner. She kept reinventing herself without being intimidated in spite of being disadvantaged financially and educationally. She grew positive and progressive, and defied social and financial gender inequality in male-dominated, patriarchal society in the end of the 18th century. She got happily married in the course of self-discovery and personal growth, and showed that an ideal marriage would be reliant on good understanding and judgment.

Elizabeth was wise enough to tide over various difficulties caused by androcentric, snobbish convention that treated women in an inhuman way, and she finally got married in pursuit of self-realization. Her character indicates that it's an eternal truth that discreet self- reflection and human understanding are a sure road toward a happy marriage, no matter how one i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